

기업가적 정신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봉경(경제·인문사회연구회)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사회전반 모든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미증유의 사태에 놓여있다. 또한, 이와 같은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인해 지난 30년 간 세계 무역성장을 주도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구조적 한계를 보이며, 기존 가치사슬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느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Multi National Enterprise)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외에 있는 제조공장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과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제조과정을 진행하는 버티컬 소싱(Vertical sourcing)을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을 지역 중심의 지역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로 개편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약 30%)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상 지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경제 및 산업의 상당수가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글로벌전략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군산지역을 지탱하던 양대 산맥 현대중공업과 GM의 공장폐쇄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지역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취약할 뿐 아니라 1960년대 수출경공업 기반 도시의 쇠퇴(부산 신발산업, 대구섬유산업 등)와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방안'에 의해 성장한 중화학산업 밀집지역(거제 및 통영 등 조선업기반 도시, 구미 전자산업 등)의 산업위기도 함께 겪으면서 지역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가적 정신(Entrepreneurship)을 연구하고, 실제로 기업가적 정신이 기업의 혁신과 나아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장하였듯이 기업가적 정신은 미시적인 측면으로는 특정 기업의 성과, 혁신 등과 같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요인이고, 거시적으로는 지역 내 신산업출현과 산업생태계 변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역산업·혁신정책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기업가적 정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을뿐더러 지역(산업) 내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기업가적 정신이 위험감수, 기회포착 능력 등과 같은 비계량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국내문헌 역시 기업가적 정신과 관련된 정책모델 모색과 이론적 논의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부족한 선행연구 속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을 이끈 정치인과 오랜 구조조정으로 사양화에 접어든 대구 섬유산업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신생 섬유 기업의 기업인을 통해 기업가적 정신이 지역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위 사례를 통해 발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롯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에 큰 역할을 행사하는 정치인(지방행정 수장)의 기업가적인 행동이 지역산업 생태계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기반 정치인의 기업가적인 활동은 지역 구에서의 재선, 더 높은 자리의 선거를 위한 민심확보,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의 특혜 등의 동기부여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송 지사의 기업가적인 활동은 지역 내에서의 확고한 정치기반 구축과 이를 통해 더 큰 행정구역의 수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지역에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였고, 나아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까지 육성함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국가가 불확실성과 혁신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야한다는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적 정부(the entrepreneurial state)와 비슷한 맥락으로 송 지사도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선제적 투자와 함께 민간과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나아갔다는 점에서 '공공에서의 기업가적 정신' 혹은 '기업가적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구지역 A기업 사례를 통해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는 섬유와 같은 전통산업도 제품혁신과 해외시장 개척, 틈새시장 공략 등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섬유산업은 국내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잃어 사양화에 접어든 거지 전 세계적으로 자라(ZARA)나 에이치엔엠(H&M) 같은 의류 SPA기업 등은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즉, 지난 시간 「공업발전법」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호와 다양한 지원을 받은 국내 섬유, 염색업체들은 제도적 장치하에 체질개선 없이 안주하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A기업 같은 신생업체의 출현은 지역 섬유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책입안자는 의식주의 한 축인 '의(衣)'와 연계된 섬유산업 자체는 인류와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산업이라는 시각 가질 필요가 있다.